

# 주간 테러동향

## Weekly Terrorism Trends

'21. 9.10(금)

### 지역별 테러 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#### 미 주

- **美, ISIS 대응을 위해 탈레반과 협력 가능성 시사**
  - 9.1 美 합참의장은 기자회견에서 탈레반에 대해 “무자비한 집단”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아프간에 남아있는 100여명의 미국인 대피와 ISIS 대응을 위해 협력이 가능하고 발표
    - \* 앞서 「바이든」 대통령도 철군완료 연설에서 ISIS-K를 향해 “아직 끝난게 아니다”라고 경고
- **美, 아프간 난민 100여명 테러단체 연루 가능성 분류**
  - 9.3 美 당국은 아프간에서 탈출해 미국에 온 3만여 명의 난민 중 1만여 명이 추가 심사가 필요하며 그 중 100여 명은 탈레반 등 테러단체 연루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류하고 처리 검토 中
    - \* 한편, 워싱턴D.C에서 심사받은 난민 중 수 명은 범죄 전과로 추방 결정
- **美, 前 알카에다 작전사령관 등 9.11 테러범 공판前 심리 재개**
  - 9.6 쿠바 관타나모 특별군사법정에서 9.11 테러 주모자로 알려진 前 알카에다 작전사령관 등 5명에 대한 공판前 심리가 18개월만에 재개, 고문으로 얻어진 진술의 증거 허용여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
    - \* '02~'03년 체포후 공판前 심리만 40여회 진행되다가 코로나19로 작년초 중단

#### 유럽

- **英 MI6, 아프간 카불에서 탈레반과 비밀회동**
  - 9.1 英 언론은 英 해외정보국(MI6)이 아프간에서 발생하는 테러 예방을 위해 카불에서 탈레반과 비밀회동을 가졌으며, 同 회동은 탈레반의 정권 장악(8.15) 직후에 이루어졌다고 보도
    - \* 비밀회동에서 MI6측은 “英 정부의 해외원조는 테러조직과의 관계를 끊는 정권에게 이뤄질 것”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부언

## 중 동

- **이스라엘, 테러 혐의 수감 팔레스타인인 탈옥**
  - 9.6 이스라엘 북부 길보아교도소에 테러 등 혐의로 수감 중이던 팔레스타인인 6명\*이 땅굴을 파고 탈옥해 군·경찰이 헬기와 드론을 투입하는 등 대대적으로 추적 중
    - \* 1명은 이스라엘인 대상 테러 책임자인 팔레스타인해방기구 '파타당' 군사조직의 전직 사령관
- **사우디, 자국 석유시설 겨냥한 '후티 반군 드론·미사일' 요격**
  - 9.5 사우디 당국은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 본사가 있는 동부지역을 공격하려던 예멘 후티 叛軍의 탄도 미사일(3발)과 드론(3대)을 요격했으며, 잔해 추락으로 최소 2명이 부상했다고 발표

## 아 · 태평양

- **뉴질랜드 총리, '예방 강화' 「테러방지법」 개정 예고**
  - 9.4 뉴질랜드 총리는 지난 3일 발생한 스리랑카 난민 출신자\*의 흉기테러(7명 부상)와 관련, 現 「테러방지법」 은 사후 처벌이 주 내용을 이루고 있어 사전예방도 강화토록 개정하겠다고 발표
    - \* SNS에 테러·극단주의 찬양 글 게시 혐의로 3년 복역후 '21.7월 출소한 후 범행
- **탈레반, 여대생 '니캅' 착용 의무화 등 새 교육규정 발표**
  - 9.6 탈레반 교육당국은 사립대학 여학생의 '니캅' 착용 강제, 남·여 구분 수업 등의 새로운 교육규정 발표
- **中, 주변국과 대테러 군사훈련 실시**
  - 9.7 중국이 허난성에서 몽골·파키스탄·태국과 함께 대테러 군사 훈련을 시작했으며, 이는 국제평화 유지를 위한 다국적 훈련으로 UN 평화유지 임무와 유사한 작전 수행 예정

駐인도네시아 호주대사관 차량폭탄테러

- '04.9.9 10시경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 소재 호주대사관에 미니 밴 차량이 접근한 후 폭발, 9명이 사망하고 180여명 부상, 대사관 건물 일부와 차량 10여대가 파괴
  - \* 폭발 파편이 주변 500m까지 비산한 대규모 폭발이었으며, 인근의 우리 교민 1명도 부상
- 사건 직후, 호주 「다우너」 외무장관은 “자국을 목표로 한 명백한 테러행위이다”라고 비난하며, 공격 배후로 극단주의 이슬람 테러 단체 ‘제마 이슬라미야’(JI)를 지목
- 인니 경찰도 해당 사건이 JI가 자행한 발리테러('02)·매리어트호텔 테러('03) 방식과 유사하다며, 同 조직 소행으로 보고 수사 진행
- 사건 이후 JI는 “그간 미국에 협조해온 호주가 이라크에서 철군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번 공격을 감행했다”는 내용을 과격 이슬람 웹 사이트에 공개하며 사건 배후를 자처
  - \* JI는 호주의 이라크 철군을 요구하며, 未이행시 추가 공격이 있을 것임을 경고
- 11.25 인니 경찰은 사건 연루자 4명을 체포하고, 테러기획 혐의로 말레이시아인 「아자하리」와 「누르딘」을 추적 중이라고 발표
  - \* 「아자하리」는 '05.11월 경찰에 포위된 후 자폭, 「누르딘」은 '09.9월 경찰에 사살

< 제마 이슬라미야(JI : Jemaah Islamiyah) >

- **(결성)** '40년대 네덜란드 식민통치에 저항하던 급진 이슬람운동에서 기원, 독립 이후 극단주의자들이 동남아 전체를 아우르는 이슬람 원리주의 국가건설을 목표로 '93년 결성  
 ※ 테러단체 지정 : UN·美·호주('02.10월), 英('02.11월), 캐나다('03.4월)
- **(활동지역)** 인니·말레이시아·필리핀 등 동남아 전역
- **(활동수법)** 미국·서방시설 겨냥 폭탄테러, 군·경찰 대상 무장공격
- **(특 징)** △'02.10월 발리 테러 등을 자행하면서 ‘동남아 알카에다’로 불리며 가장 위협적 테러조직으로 평가되었으나, 정부 소탕작전으로 크게 약화  
 △'20.8월 인니 보안당국은 “자국의 장기적 최대 테러위협은 JI의 재건이며, 최근 이들이 조직원 再규합 등 세력 회복에 주력중”이라고 평가
- **(주요테러)** △'02.10월, 발리 나이트클럽 등 연쇄 폭탄테러(호주인 88명 등 202명 사망)  
 △'05.10월 발리 소재 식당 등 3곳 연쇄폭탄테러(호주·일본인 등 26명 사망)  
 △'09.7월 자카르타 매리어트·리츠칼튼호텔 연쇄자폭테러(57명 사상)

